

한국산업인력공단, OECD 무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 혁신사례 공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분야 AI 활용 경험 공유
- ‘인공지능(AI) 기반 NCS 개발·개선체계 혁신으로 산업현장 변화 신속 대응’ 강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Develop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교육훈련(VET) 개발)」 국제 웨비나(웹+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개선 과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임

이번 웨비나는 OECD가 발간한 「Developing VET with AI」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직업교육훈련(VET) 분야에서 AI가 교육과정, 자격 및 직업 표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국의 AI 활용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해 이를 통해 GPT 기반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형식검증 지원 AI 도구인 ‘NCS Check Mate’를 소개했다.

공단은 이번 웨비나에서 ‘NCS Check Mate**’를 활용해 NCS의 형식 적합성을 자동 점검하고 검토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문가 검토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간의 추진 경험과 향후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 ‘NCS Check Mate’는 Chat GPT를 기반으로 공단 NCS 개발·개선 매뉴얼에 따라
NCS의 형식 타당성을 검증하고, 오류를 자동 검출할 수 있도록 제작한 AI 도구

이병훈 이사장은 “AI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 혁신 사례가 OECD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것은 K-HRD(한국형 인적자원개발)의 큰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이 3대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형 인적
자원개발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개발부	책임자	부장	최용일 (052-714-8770)
		담당자	과장	박보은 (052-714-8721)

